
현재 보험산업의 10대 리스크¹⁾

□ 개요

- 글로벌 신용평가·리스크분석 기업 무디스는 보험 분야 연례 컨퍼런스 주최를 앞두고 보험산업의 10대 리스크를 발표함
- 본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현안과 이에 따른 보험산업 내 도전 과제 및 대응 전략을 살펴봄

□ 10대 리스크

① 사이버 공격

- 현존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위협적인 리스크 중 하나로, 기업 및 정부의 사이버 보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
- 보험사의 과제는 사이버 위험을 제대로 반영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,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해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

② 기후변화

- 벌써 1.5도 이상의 지구온난화 ‘임계점(tipping point)’ 을 뛰어넘는 새로운 임계 현상이 발현할 우려가 있음
- 복잡한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보험사와 정부의 리스크 경감 대책 마련과 친환경 전환 사업 추진이 시급히 요구됨

1) 무디스 “The 10 Major Risks Shaping Insurance Today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

③ 넷제로

-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일컫는 ‘넷제로’는 그 자체가 목표이기도 하지만, 기후 행동의 구조화와 이해를 위한 프레임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
-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, 사회, 경제 등 모든 영역의 변화가 요구되며, 친환경 신기술은 보험산업에 기회임과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함

④ 경제적 충격

- 2010년대 이후 보험사는 인플레이, 고금리 등 경제 충격이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음
- 또한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생명보험 실효율 증가 등 경제적 여파를 경영 계획에 반영하여 충격에 대응하여야 함

⑤ 자연재해

- 자연재해의 빈도 및 심도 확대로 보험사의 손해가 증가하여 고위험 자산에 대한 보장 회피 경향이 생기고, 소비자도 고물가와 재물보험료 상승 속에서 보험가입을 주저함
- 보험사는 주택소유자, 기업, 지역사회의 파트너로서 리스크 경감과 보험소비자의 회복탄력성 및 경제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

⑥ 세계 공급망

- 코로나 시기 생산 부족,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, 노동 시장 경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공급망 문제로 인해 보험사는 지급보험금 확대 위험에 노출됨
-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과 회복탄력성을 향상하고 취약성을 파악해 미래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해야 함

⑦ 장기전

- 다년간 지속되는(perennial) 전쟁과 갈등이 재부상하면서 인프라, 교역로, 천연자원 등이 취약해지고 세계 무역이 타격받고 있음
- 보험사는 많은 지정학적 갈등 중에서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확산될 것을 식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함

⑧ 인프라 약화

- 이미 주요 인프라가 노후화된 선진국, 미래 안정성이 불확실한 인프라를 건설 중인 개발도상국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
- 댐, 전력, 주택 등 열악한 인프라 자산을 보장하는 재물보험사 뿐 아니라 인프라에 수반된 배상책임 등 관련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사의 손해액도 동반 상승함

⑨ 지출 주기가 긴(long-tail) 청구건의 증가

- 보험금 및 소송률 증가, 코로나 이후 법원 업무 적체, 일부 민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등으로 인해 보상 업무 처리 기간이 길어져 불확실성이 확대됨
- Munich Re에 따르면 만기된 보험에 대한 청구건이 2023년 기준 연 33% 증가해, 보험약관이 모호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함

⑩ 장수 및 사망률

- 이미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가 100만 명에 근접하고, AI 신약 개발 지원 등으로 기대수명의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지만,
- 비만, 활동 부족, 저품질 식단, 음주, 약물,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가 ‘건강수명*’ 연장을 어렵게 해 보험에 대한 의존이 증가함

* 한 사람의 인생 중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없는 기간